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저자: Edward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각색: M. Kerr, Sarah S.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09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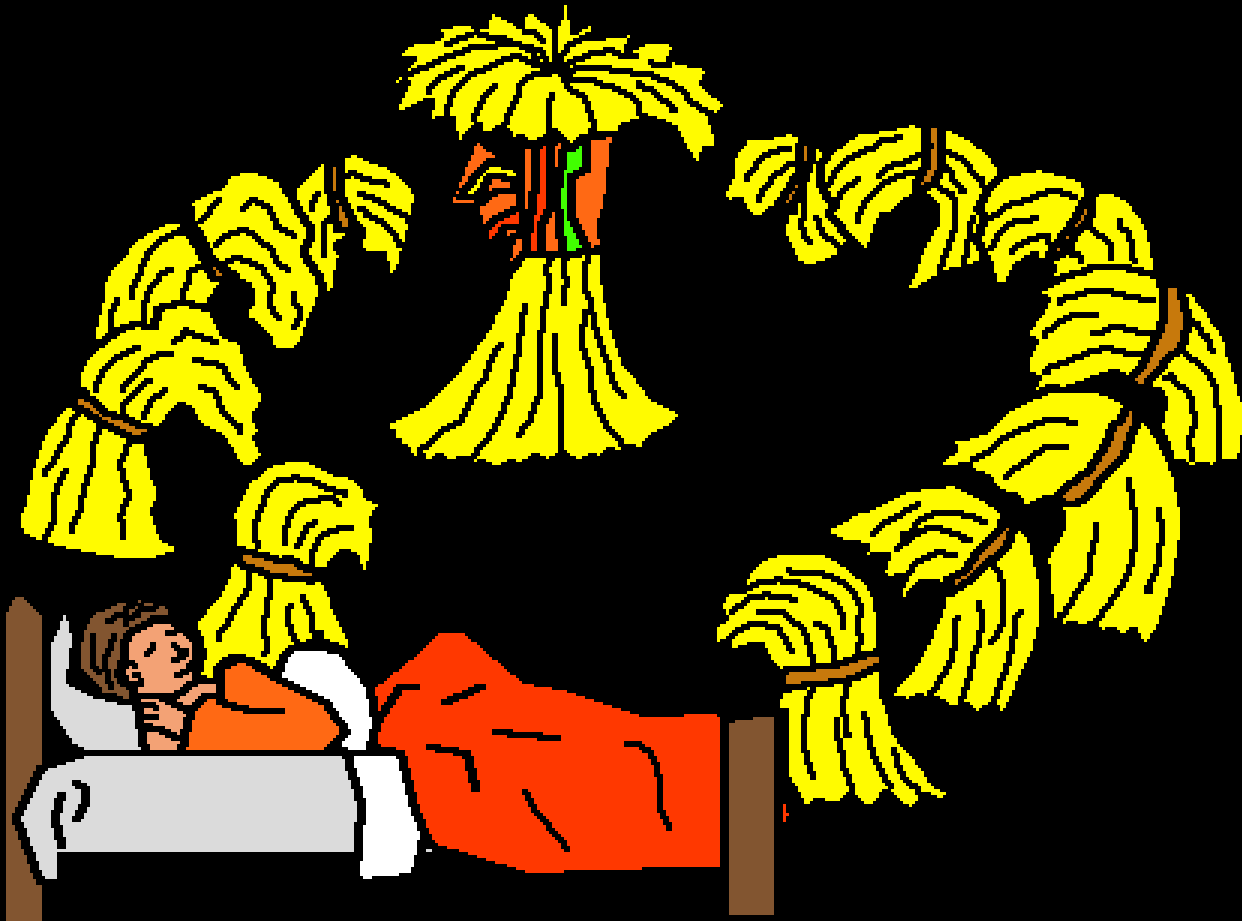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이삭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집에 돌아와서 매우 기뻐했어요. 심지어 한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까지도 그를 환영했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바로 아버지의 편애하는 동생 요셉 때문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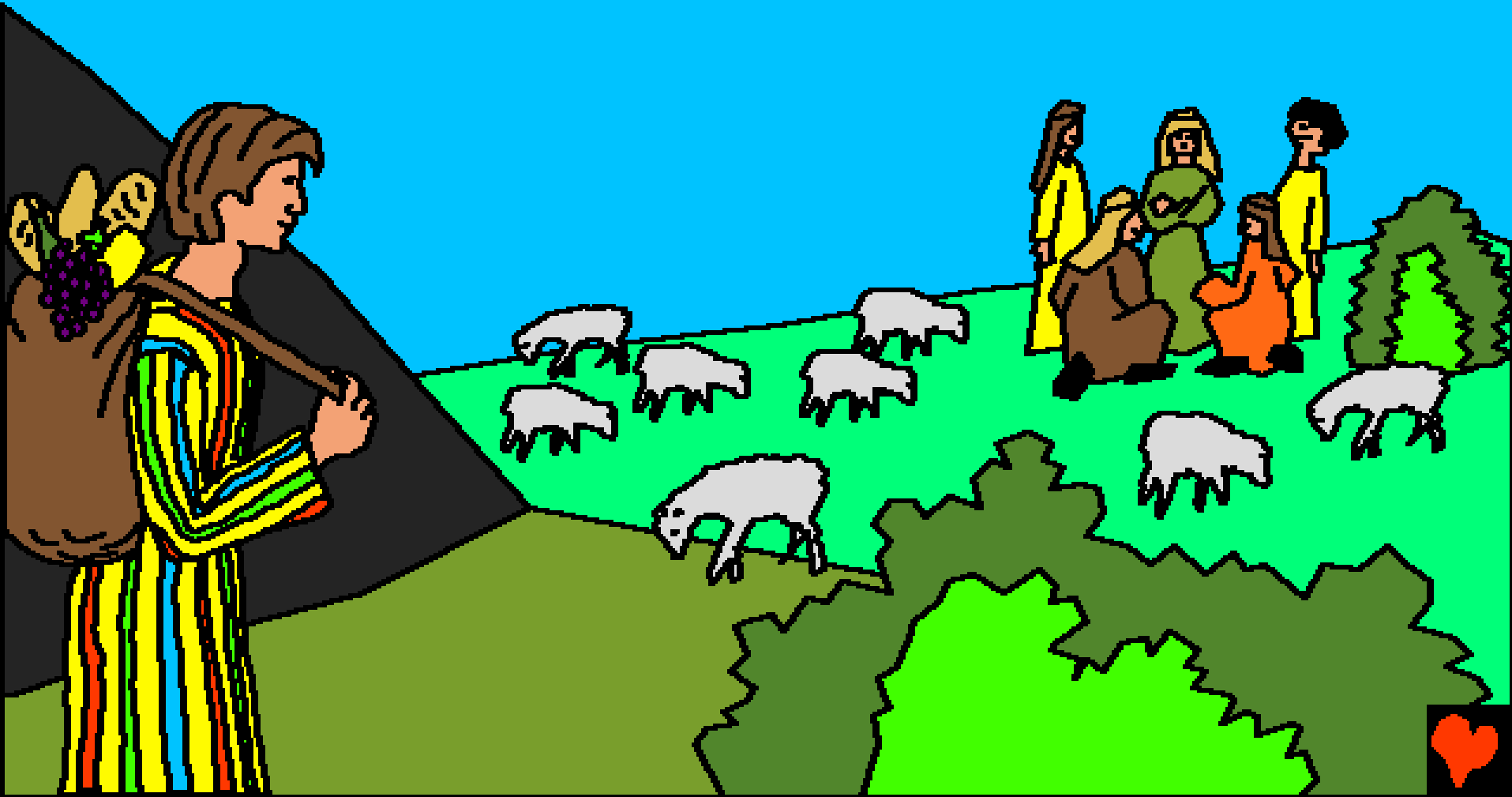
요셉의 형들은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에 “내 단은 일어서고 내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었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 꿈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두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엔 심지어 그의 아버지 야곱까지도 그 자신을 부모와 형제보다 높이는 것에 대해 화를 내었지요.



어느날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이 양 떼를 치는 들로 보냈어요.
그의 형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는 “이 꿈꾸는 자를 죽여
버리자.” 고 꾀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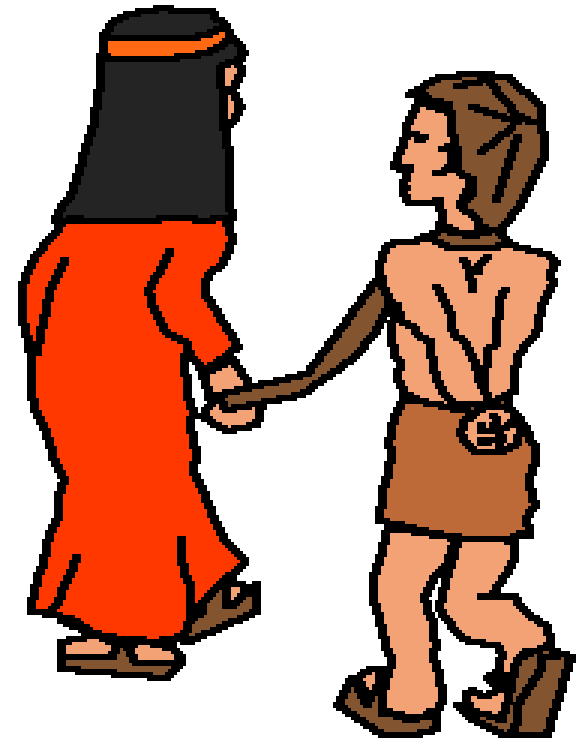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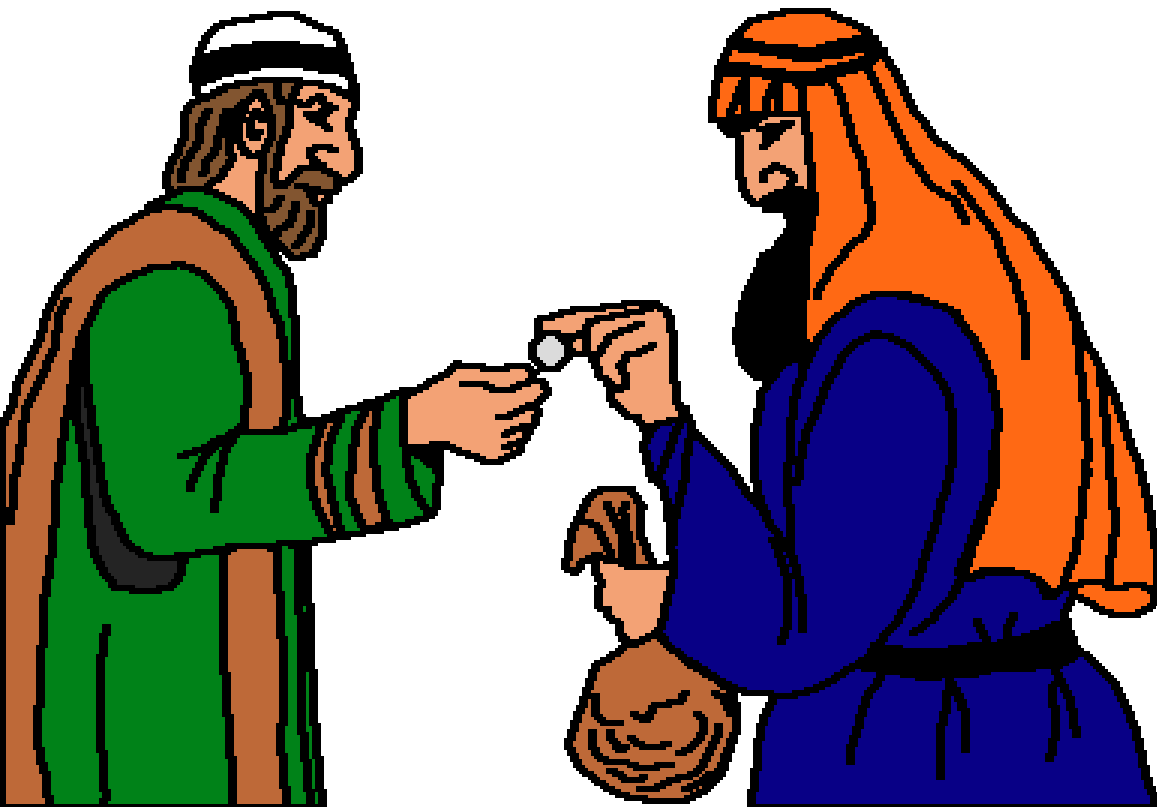
맏형인 르우벤은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여기 구덩이에 던져 거기서 죽게 하자.” 며 반대하였어요. 르우벤은 요셉을 해질녘에 구해줄 생각으로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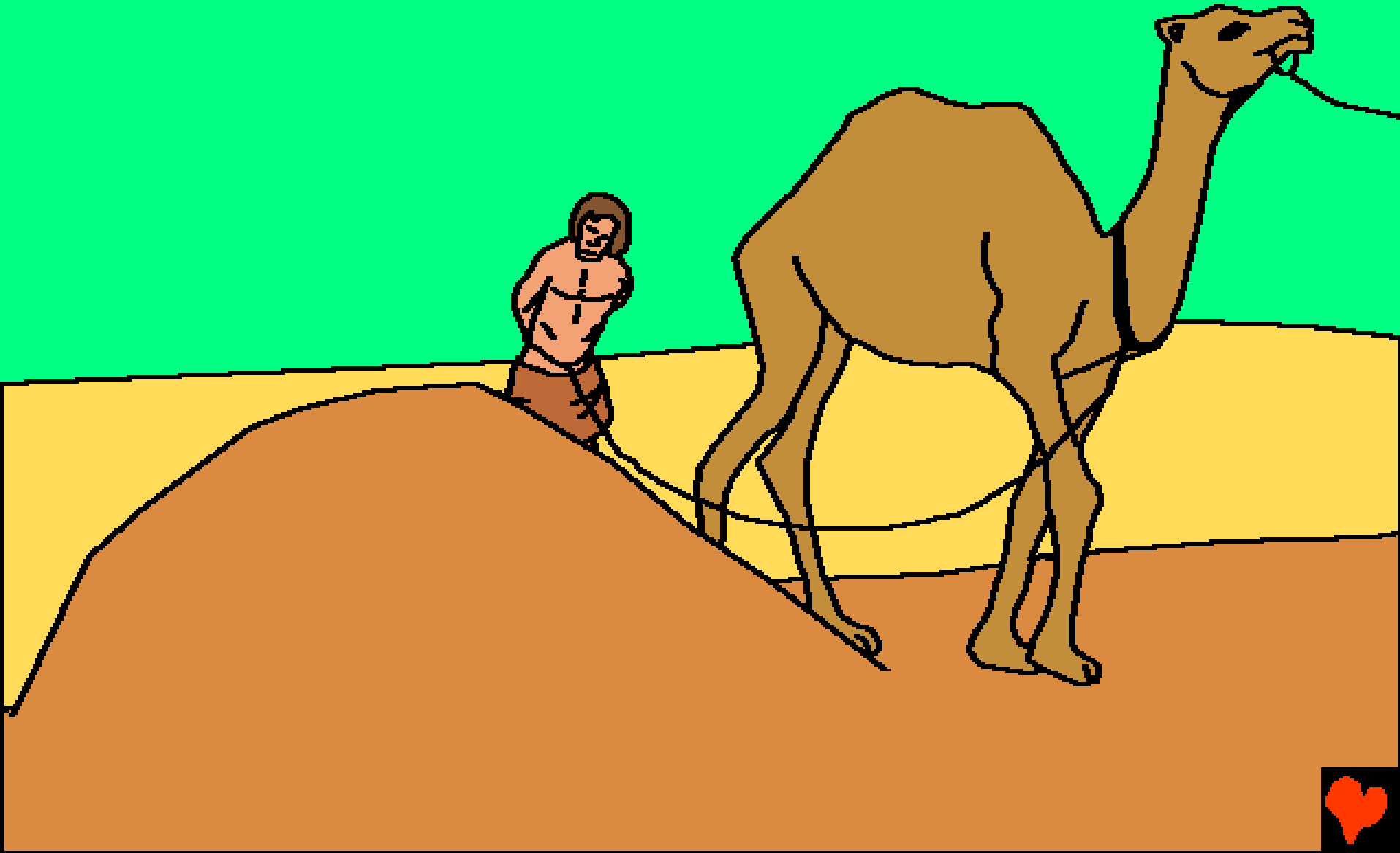
요셉이
도착하자,
그의 형제들은
그를 붙잡아 야곱이 특
별히 만들어준 채색옷
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
져버리고 말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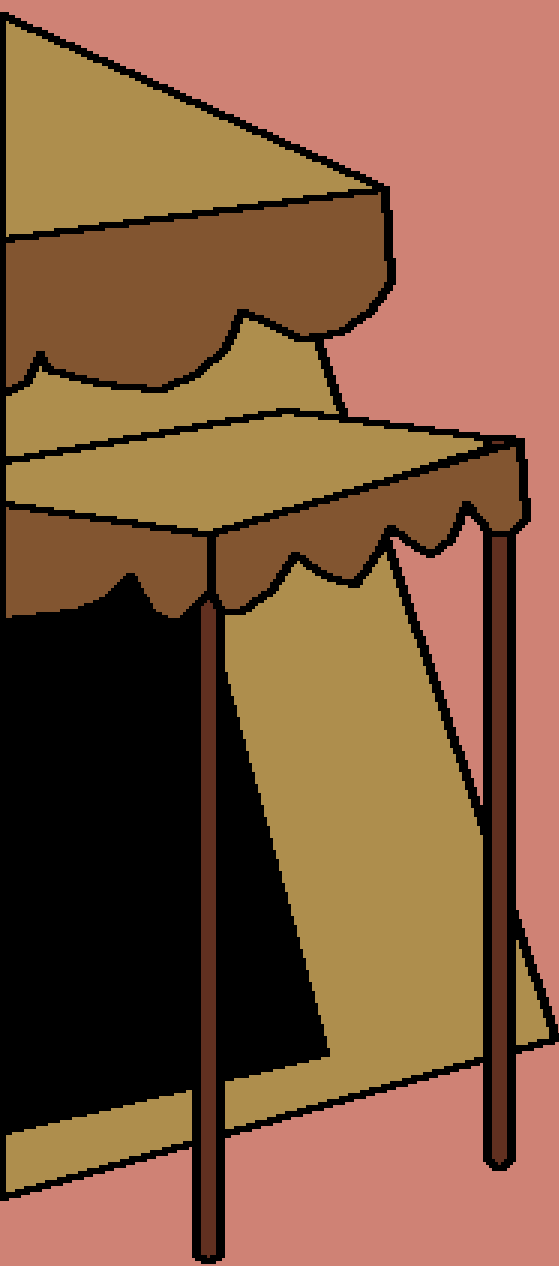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유다가
약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을 팔아 버리자.”
라고 하자 형제들이 동의하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은 이십전에 노
예로 팔아 넘겨지고 말았지요.



요셉은 눈물과 근심 속에 약대에 끌려 무기력하게 가족과 고향을 떠나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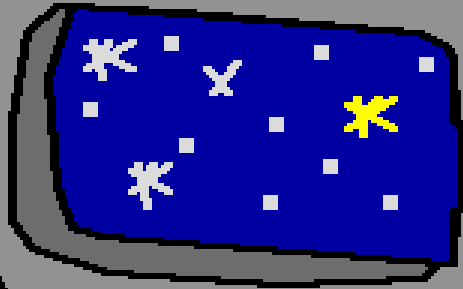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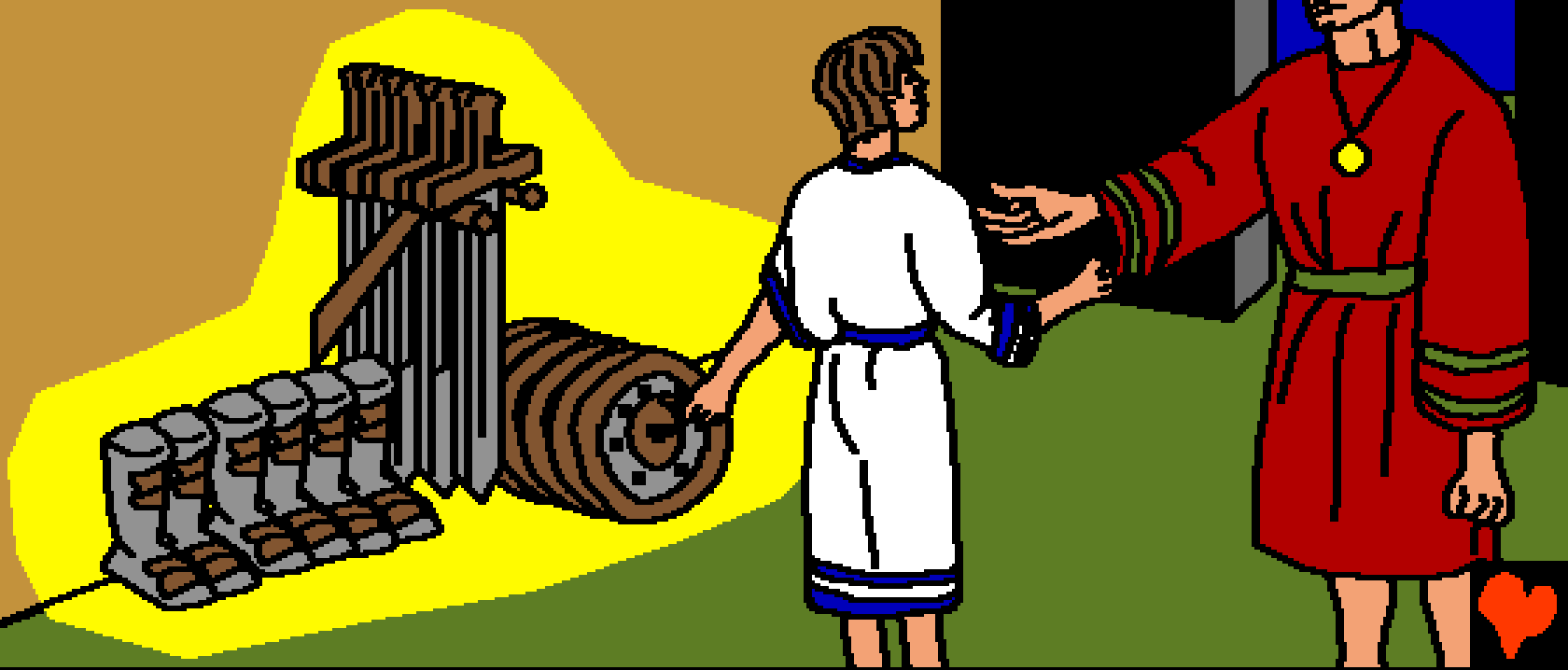
“이 피투성이 옷이 요셉의 것인가요? 우리가 사막에서 찾았어요.” 라고 하며 잔인한 형제들은 야곱이 악한 들짐승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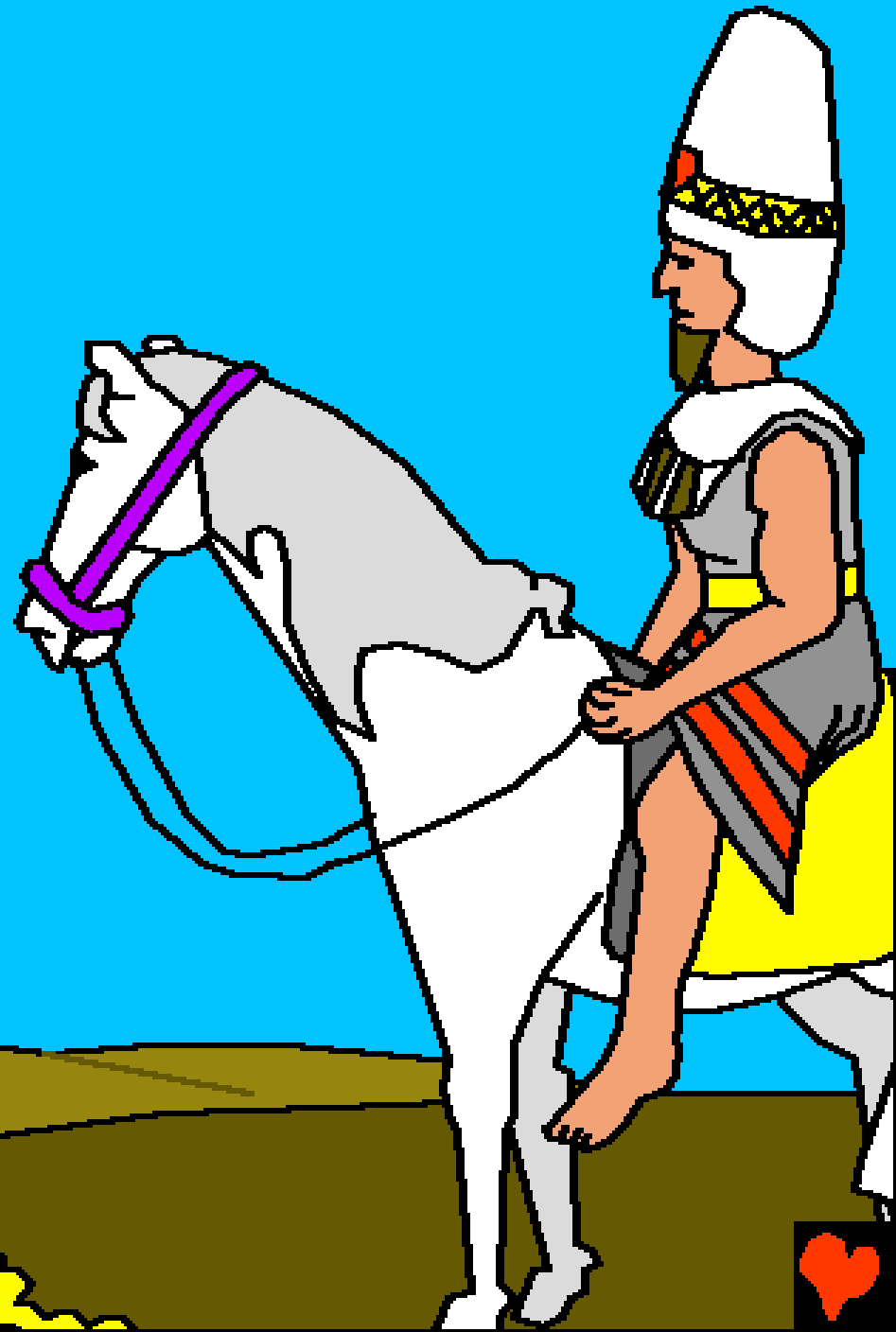
분명히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렵고 외로워 집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고관인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었지요. 보디발은 요셉이 항상 열심히 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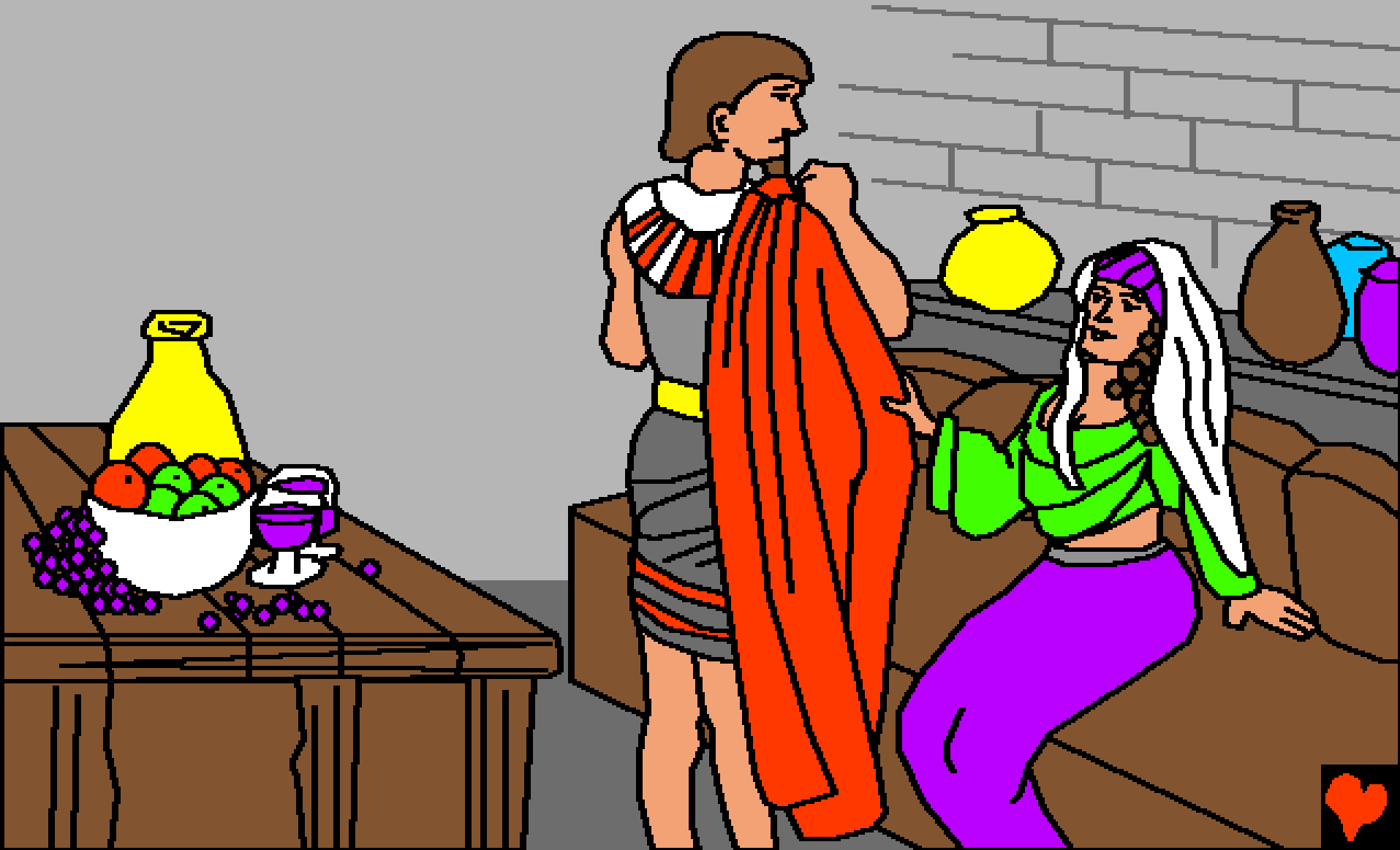
어느날 보디발은 요셉에게 “너는 범사에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가정 총무가 되어 내 일들과 다른
하인들을 다 주관하길 바란다.” 며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
디발에게 풍년과 번성으로 축복
하셨어요. 중직을 맡은 후에도 요
셉은 신뢰받으며 하나님을 신실
하게 섬겼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문제가 닥쳤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사악한 여자라서 요셉을 희롱하려 하였어요. 물론 요셉이 거절하였어요. 그는 보디발에게 잘못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 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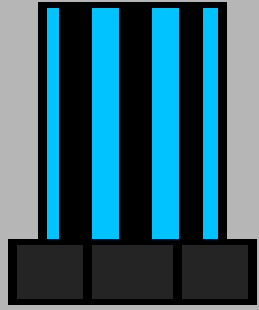


그렇지만 그 여자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강요하자 요셉은 도망쳤어요. 그런데 요셉의 옷이 그 여자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종이 나를 희롱하였어요. 여기 그의 옷 좀 보세요.” 라고 말하자 보디발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는 자기 부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만 했지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잡아
넣었어요. 요셉은 결백함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화내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그를 위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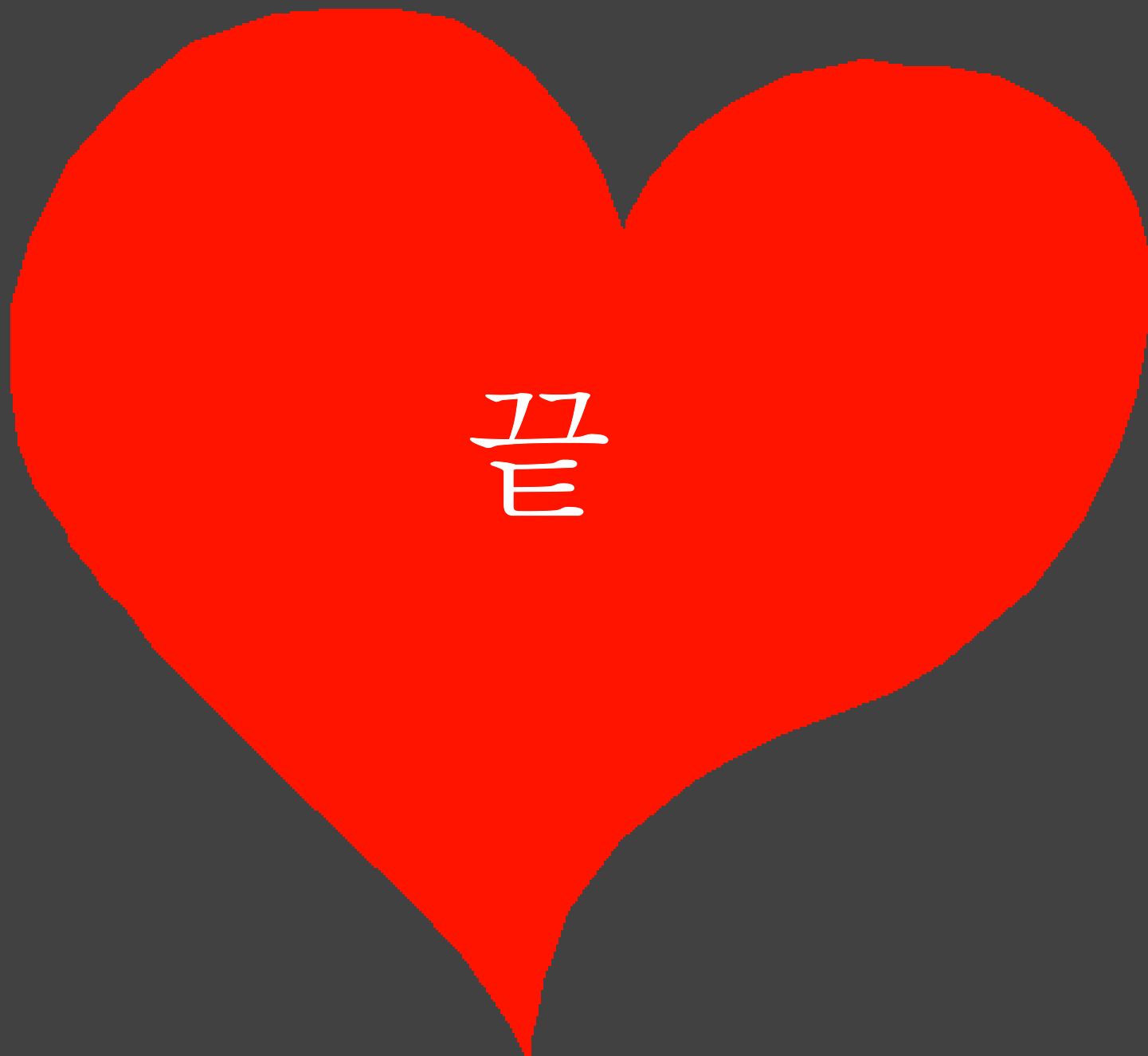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39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